

조선 최초 세계 여행자 흥어장수 문순득 축제 연다

‘2021신안국제문페스타’
자은도 1004 뮤지엄파크서
31일부터 이틀간 개최

천사섬 신안에서 해양수산부 해양역사인물 17인에 선정된 흥어장수 문순득과 함께하는 축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극단 갯돌은 세계마당아트진흥회 등과 함께 ‘2021 신안국제문페스타(이하 문페스타)’를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신안군 자은도 1004 뮤지엄파크에서 연다.

이번 문페스타 키워드는 ‘여행자’이다.

흥어장수 문순득은 220년 전 흥어를 사러 흑산도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서 풍랑을 만난다. 그는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에 표류하고 중국을 거쳐 3년 2개월 만에 고향 우이도로 돌아온다.

문페스타는 흥어장수 문순득을 ‘조선시대 최초 세계 여행자’로 소환해 바다를 느끼고 환경과 함께하는 해양문화축제를 연다.

개폐막을 비롯해 뮤지엄파크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바다쇼 콘서트, 필름 시네마, 해양문화여행, 해변 마당극, 다이나 놀이마당, 해양문화여행, 파시 마당 등 여행자들을 위해 다채롭고 이색적인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이하게도 개막은 축제가 열리기 11일 전인 20일로 잡았다.

흥어장수 문순득의 고향 우이도에서 잔치마당, 추모제, 영화 상영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영화 ‘자산어보’ 상영회는 손암 정약전의 유배지 우이도에서 열린다.

폐막은 뮤지엄파크 양산해변에서 피벳놀이, 제웅(짚인형)놀이, 바가지불피우기 등으로 여행자와 섬 주민이 함께 신안 해양민속체험을 즐기면서 막을 내린다.

해변 마당극은 ‘흥어장수 문순득 표류기’를 극

단 갯돌이 공연한다.

축제를 주관하는 극단 갯돌은 2010년부터 문순득의 표류 스토리를 마당극으로 제작해 지금까지 최고의 레퍼토리 작품으로 인기를 받고 있다.

이 공연을 계기로 문페스타, 문순득 표류 국가아시아연대 등 국제 해양 콘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인 사업을 펴고 있다.

문페스타를 지휘하는 손재오 총감독은 “문순득을 여행자로 소환한 것은 그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기에 요즘 트렌드인 여행과 어울린다”고 말했다.

극단 갯돌은 2010년부터 문순득의 표류 여정을 소재로 한 마당극 제작을 비롯해 문순득이 표류한 오키나와, 마카오, 필리핀의 도시들과 국제 교류를 다져왔다. 2019년부터는 문순득을 통해 신안의 해양 문화 가치를 드높이기 위하여 국제 축제로 개최해오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흥어장수 문순득을 주제로 열리는 ‘2021 신안 국제 문페스타’의 홍보 포스터. <신안군 제공>

목포시 시민의 상 후보자

6개 부문 8월말까지 추천

목포시가 ‘시민의 상’ 후보자를 오는 8월31일까지 추천받는다.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목포시를 빛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등 총 6개 부문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최종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수상후보자는 시의원, 동장,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하거나, 개인이 2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경제계, 교육·문화계, 체육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시민의 상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9월 중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9월 말 ‘제59회 목포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 및 심사위원 지원 서류는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시민이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무안군, 행복택시 요금 1000원→100원으로

무안군이 12일부터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내렸다.

무안군의 행복택시는 임산부나 노약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요금 지원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버스 승강장에서 600m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해당 거주지의 읍면소재지 내에서 이동할 경우 편의를 위해 월 4~6개의 택시쿠폰을 지급한다. 이용자들은 쿠폰 거리 이외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경우 1000원을 지급해 왔다.

군은 이번엔 관련 조례개정 절차를 마치고 조례

가 공포되는 12일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했다.

행복택시 요금이 100원으로 조정되면 교통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 완화로 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행복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기계 요소수 무상공급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미세먼지 대응 ‘요소수’ 공급 호응

트랙터·콤바인 보유 농업인
1.4t 소진 때까지 선착순 배부

영광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요소수’를 무상으로 공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무상공급 대상자는 기존 엔진을 장착한 농기계 중 요소수를 첨가하는 트랙터, 콤바인을 보유한 지역 농업인이며 총 공급량은 1.4t으로 7월부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무상 공급량은 한 농가당 최대 10로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북부·남부분소)에서 공급을 진행한다.

요소수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에서 쓰이는 촉매제로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데 쓰인다. 이를 통해 엔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요소수 무상공급은 농기계 미세먼지 배출량의 심각성과 절감 방법에 대해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과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미세먼지 감축 대응, 잔가지파쇄기 무상 임대 활성화’를 추진해 지역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세얼굴

“이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 등 역량 집중”

김장오 영광군 부군수

“이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장오(58) 영광군 부군수는 “오는 9월 영광에서 치러지는 전남 최고의 체육 행사인 전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실증과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초대형 해상풍력 실증기반 구축,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등 핵심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함평 출신인 김 부군수는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주사,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서기관, 전남도 청렴지원관, 전남도 세정과장,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을 역임했다.

풍부한 중앙부처 행정경험과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 넓은 아량과 온화한 인품으로 동료들로부터 최선을 다하는 실력 있는 공직자로 평가 받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양성과정 영암군, 전남 지역 최초로 개설

영암군이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전남 지역 최초로 개설했다.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양성과정은 주민 스스로 마을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을관광축제 추진 위원장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8명의 수강생을 최종 선발한다.

교육기간은 오는 9월 14일까지 총 21회, 4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축제 기획과 운영에 관련한 이론·실습교육을 병행한다.

강사는 축제전문가 및 농촌관련학과·관광관련학과 교수, 지역문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초빙강사의 이론 및 실무교육과 함께 초청특강, 현장 컨설팅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문화관광축제·마을관광축제·지역축제 등 축제의 이해,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운영 중심의 실무, 축제 제안서·예산서·기본계획서·실행계획서 작성 기법,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운영 등 실무중심으로 진행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양성 과정이 마을축제와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영암의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